

사라진 王國, 遺民들의 肖像

— 諸子書에 나타난 宋人의 形象을 中心으로 —

姜 宗 妊*

<目 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諸子書를 읽는 또 하나의 독법:
상상적 디아스포라 |
| II. 諸子書 속의 殷 왕조 후예들 | V. 나오는 말 |
| III. 殷 왕조의 문화적 역량 | |

I. 들어가는 말

공자가 추구하고자 했던 이상은 하극상의 혼란이 팽배한 현실에서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주나라의 문화와 질서였다. 공자의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는 주나라가 상당히 발전한 문화와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에 반해 주나라에 의해 정복당한 은나라는 상대적으로 사치와 향락으로 말미암아 운명을 다한 왕조로 여겨온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이다. 고증할 수 있는 문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겠지만 은대는 역사의 시점이 된 갑골문이나 각종 청동기물 등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있음에도 그 본래의 면목이 상당 부분 가려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로 인해 중국의 역사와 서사 속에서 은나라는 주나라에 비해 문화적으로 낙후된 왕조로 알려져 왔다.

지금까지 은 왕조에 대한 연구는 대다수 갑골문의 분석을 통한 사회 역

* 東國大學校(慶州) 中語中文學科 兼任教授

사적 이해라는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 밖에 장광직 등이 고고학적 방법을 통해 은대 문화와 문명을 규명해 낸 것 역시 우리가 은나라를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흔히 은·나라에 대한 인식은 은·주대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역사, 사상, 문화 등을 다룬 개설서나 역사서에서는 주나라의 문화와 인문주의를 부각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반해 은나라에 대해서는 인간보다는 신과 더 가깝고, 따라서 종교적 제의를 더 중시하던 왕조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들은 일반적으로 은주 시기 문화의 전이를 “비약”¹⁾이라고 표현하는 계기가 된다. 거기에는 은나라가 지니는 죽음, 취함, 정(情), 신기(神氣), 종교, 천(天) 등의 문화에 대하여 주나라의 삶, 깨임, 이(理), 인문(人文), 사문(斯文), 인(人)의 문화라는 차이가 존재한다.²⁾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은 이미 많은 학자들의 공감을 얻었고, 중국 고대의 문화 흐름을 규정하기에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상당히 일리가 있는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쩐지 이러한 시각의 이면에는 역사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다시 말해서 주와 은은 정복민과 피정복민의 관계이고, 시간적으로 후대인 주문화가 은문화에 비해 발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관념은 은의 유민들에게 덧씌워지면서 그들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는 나라 잃은 은나라 사람들이 설 땅이 없어서 장돌뱅이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데에서 유래한 ‘商人’이라는 단어³⁾를 비롯해서 은 왕조의 유민인 춘추전국 시기 송인들의 형상이 그와 같은 것들이다. 즉, 춘추전국시기 제자서의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掘苗助長’, ‘宋襄之仁’ 등 우화나 실제 역사 속의 어리석고 우매하고 고지식한 주인공들의 국적이 공교롭게도 모두 송나라였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

1) 김용옥, 《도올논어》[1]권, 통나무, 2000, 87쪽.

2) 김용옥, 같은 책, 90쪽.

3) 강효백, 《중국인의 상술》, 한길사, 2002, 5쪽.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서사물들이 은 민족의 실상이라기보다는 정복당한 은 왕조의 디아스포라 문학이라는 것이다.⁴⁾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러한 형상이 정복민족에 의해 의도적으로 묘사된 형상이며, 역사적 사실과 상관없이 아마도 정복당한 민족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졌던 왜곡된 인식이었음을 밝혀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제자서에 등장하는 송인의 형상을 고찰하여 송인의 모습이 제자서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정리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러한 서사물 속에서 비취졌을 송인들의 형상이 후대인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각색된 회화 내지 왜곡의 소치임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에는 송나라의 모국인 은나라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나아가 정복당하기는 했으나 찬란했던 문화를 계승했었을 은의 유민 송인들이 폄하된 채 후대 사람들의 뇌리 속에 박히게 되는 원인이 주나라에 성립된 의도적인 서사기록 태도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은 우리가 제자서를 읽는 또 하나의 독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즉 그것은 송인들의 모습이 하나의 역사적 실체로 환원된 채 실제 면모인 양 인식되는 오류를 경계하고, 그들의 모습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진실과 의미를 밝혀내고자 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II. 諸子書 속의 殷 왕조 후예들

중국 춘추시기의 제자서는 중국의 고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중요한 텍스트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여러 텍스트 가운데 하나라고 하기보다는 고전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부르는 까닭은 그것들이 단순히 오래되었기

4) 김용옥 선생은 “송나라는 은 유민들의 디아스포라다”라고 언급하였다. 또 춘추전국의 제자백가에서 ‘송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주나라 문화권에서 자기들이 멸망시킨 왕조의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자아내기 위하여 지어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김용옥, 같은 책, 81-82쪽 참조.

때문이 아니라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보편적 지혜와 가치를 이월해 주기”⁵⁾ 때문이다. 즉 지혜와 철학적 가치가 풍부한 제자백가의 사상을 지금의 눈으로 보고 읽는 것은 지금과 닮아 있는 과거를 재조명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길찾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전이 단순히 텍스트에 머물지 않으며 ‘자기 통찰’을 거쳐, 더 나아가 ‘타인, 외부와의 긍정적 관계망 형성’에 도움을 주며 삶의 긍정적 의미를 찾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의미⁶⁾ 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고전과 그 해석이 지니는 진정한 인문학적 의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자서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와 인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성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성찰의 기회, 삶의 지침 등을 제공하며 끊임없이 읽혀지고 있다.

그것들은 혼란하던 시대의 다양한 장소와 상황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이기에 언제나 우리의 흥미를 끈다. 게다가 제자들이 자신들의 사상을 피력하기 위해 제시한 우언들도 많아 등장인물들의 형상도 해학적이거나, 또 사람들에게 인지되고 이해되는 양상도 각각이다. 그런데 유독 어리석은 인물들의 형상이 송나라 사람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눈길을 끈다. 대표적으로 ‘알묘조장’이나 ‘수주대토’는 하나의 성어로 고정되어 누구에게나 익숙해진 이야기들이다.

송나라 사람 중에 벼가 자라지 않는 것을 걱정하여 벼를 뽑아 올려준 자가 있었는데, 매우 피곤한 모양으로 돌아와서는 집안사람들에게 ‘오늘은 너무 피곤하구나! 나는 벼가 자라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말하였다. 그 아들이 달려가서 보았더니 벼가 모두 말라 (죽어)있었다.⁷⁾

5) 김영, <한문고전의 현대적 이해>, 《시학과 언어학회》, 2002, 42쪽.

6) 유강하, <‘고전’수업을 위한 제언-인문학적 삶의 실천을 위한 수업모델 제안>, 《중국어문학논집》, 2007, 670-671쪽 참조.

7) 宋人有閔其苗之不長而掘之者，芒芒然歸，謂其人曰：今日病矣，予助苗長矣！其子趨而往視之，苗則槁矣。《孟子·公孫丑章句·上》，우재호 옮김, 《孟子》，을유문화사, 2007, 209-210쪽.

송나라에 밭을 가는 자가 있었다. 밭 가운데에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토끼가 달아나다 나무그루에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 사람은 쟁기를 버리고 나무그루를 지키면서 또다시 토끼를 얻으려고 기다렸으나 다시 토끼를 얻지 못하고 자신만 온 송나라 안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⁸⁾

‘알묘조장’은 곡식의 싹을 잡아당겨 빨리 자라도록 돕는다는 뜻으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억지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맹자가 浩然之氣를 기르는데 있어서 급하게 서두르거나 억지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조장”이라는 단어가 자라기를 돕는다는 좋은 뜻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말은 나쁜 일을 만들어내거나 부추길 때 사용되곤 한다.

또 ‘수주대토’는 ‘나무 그루터기를 지켜보며 토끼가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한비자는 이야기의 끝 부분에 “지금 선왕의 정치하던 방법을 가지고 지금 세상의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모두 그루터기를 지키는 부류와 같다(今欲以先王之政, 治當世之民, 皆守柱之類也.)”라고 언급하여 요행만을 바라거나 새로운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밖에도 《韓非子》에는 유독 송인의 형상이 많이 등장하는데 예컨대 송나라 燕王과 兒說의 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송나라 연왕은 정밀한 공예품을 좋아하였는데, 때마침 위나라 사람이 가서 끝에도 원숭이의 모습을 조각하겠다는 자가 있어서 왕은 기뻐하며 사방 300리의 땅을 주었다. 그리고 위나라 사람에게 말하기를 “가시에다 조각한 원숭이를 꼭 보여주시오” 하였다.

그 사람은 “왕께서 그것을 꼭 보시겠다고만 반드시 반 년 동안 후궁의 방에 들지 않고 술과 육식을 삼가야 하며, 그런 후에 비가 멈추고 날씨가 좋은 날 그늘에서 보시면 조각한 원숭이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8) 宋人有耕者, 田中有株, 兔走觸株, 折頸而死. 因釋其耒而守株, 冀復得兔, 兔不可復得, 而身爲宋國笑. 《韓非子·五蠹篇》, 남만성 역주, 《韓非子》, 현암사, 1993, 86-87쪽.

위나라 사람은 왕에게 이런 식으로 원숭이를 좀처럼 보여주지 않았다.

그 무렵 한 대장장이가 연왕을 찾아와 말하기를 “신은 작은 칼을 만드는 자입니다. 모든 사물은 작은 칼로 조각하게 마련이고, 또 그 조각품은 반드시 깎는 칼보다 크지 않으면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나무의 가지 끝에는 도저히 칼질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시험 삼아 먼저 그 칼을 보여 달라고 하십시오. 조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위나라 사람은 “네, 객사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자리를 뒀는데, 그 길로 송나라 밖으로 달아나고 말았다.⁹⁾

한 나그네가 연왕에게 불사의 도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 이것을 배워오게 했는데, 미처 다 배우기도 전에 그 나그네가 죽어 버렸다. 왕은 크게 화를 내며 불사의 도를 배우던 사람을 책망했다. 왕은 나그네가 자기를 기만했다는 것을 모르고, 학습을 받던 자가 빨리 배우지 못했다고 책망한 것이다.¹⁰⁾

한비자는 연왕의 이야기 말미에 대장장이의 입을 빌어 “치국에 있어 법도와 규칙이 없으면 언설하는 유자 가운데 이러한 망언을 하는 자가 많다(計無度量, 言談之士, 多棘刺之說也)”라고 부연하고 있다. 이를 보면 아마도 송나라의 연왕은 치국에 원칙이 없는 사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보다는 자질구레한 것들을 좋아하는 호사가였음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불사를 주장하던 사람이 죽었음에도 그 분명한 모순을 깨닫지 못한 것

9) 燕王徵巧衛人, 衛人請以棘刺之端爲母猴. 燕王說之, 養之以五乘之奉. 王曰: “吾試觀客爲棘刺之母猴.” 客曰: “人主欲觀之, 必半歲不入宮, 不飲酒食肉. 雨霽日出, 視之晏陰之間, 而棘刺之母猴乃可見也.” 燕王因養衛人, 不能觀其母猴. 鄭有臺下之冶者, 謂燕王曰: “臣爲削者也. 諸微物必以削削之, 而所削必大於削. 今棘刺之端, 不容削鋒, 難以治棘刺之端. 王試觀客之削, 能與不能可知也.” 王曰: “善.” 謂衛人曰: “客爲棘削之,” 曰: “以削.” “吾欲觀見之.” 客曰: “臣請之舍取之, 因逃. 《韓非子·外儲·左上》, 王先慎 集解, 《韓非子集解》, [諸子集成本]卷5, 上海書店, 1996, 200-201쪽.

10) 客有教燕王爲不死之道者. 王使人學之, 所使學者未及學, 而客死. 王大怒誅之. 王不知客之欺已, 誅學者之晚也. 《韓非子·外儲·左上》, 같은 책 201쪽.

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기까지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한비자는 사물의 도리를 살피지 못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믿어 죄 없는 신하를 책망한 군주라고 비판한 것이었다.

한비자는 또 다른 송나라의 인물로 아열의 이야기를 들고 있다.

아열은 송나라 사람으로 능변가였다. ‘흰말은 말이 아니다’라는 설을 고집함으로써 학자들이 모이는 제나라의 직하에서 변자들을 굴복시켰다. 그런데 그가 흰 말을 타고 국경의 관문을 지나갈 적에는 곧 흰말의 통행세를 물었다.¹¹⁾

아열은 외견상 언변으로는 당해낼 사람이 없는 달변가이다. 하지만 그 언변이라는 것이 실상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언행이 일치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비자는 이를 비판하여 “공론(空論)으로는 능히 일국의 학자들을 이길 수가 있었지만 실물을 두고 논할 때에는 한 사람의 관문지기조차 속일 수 없었다(籍之虛辭則能勝一國, 考實按形不能謾於一人)”고 비판하였다.

우리는 《莊子》에서도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송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齊物論>에는 ‘朝三暮四’라는 성어로 알려진 송나라 狙公의 이야기가 실려있다.¹²⁾ 이 이야기는 흔히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어 상대에게 설복 당하는 원숭이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지곤 한다. 그러나 같은 개수의 도토리를 주고도 원숭이들의 불만을 무마할 수 있었던 저공의 꾀는 남을 농락하여 속이는 행위를 비유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실로 간교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장자》에는 또한 송나라 상인과 ‘장보’의 짙막한 이야기가 나온다.

11) 兒說, 宋人善辯者也. 持白馬非馬也. 服齊稷下之辯者. 乘白馬而過關, 則顧白馬之賦. 《韓非子·外儲·左上》, 같은 책, 201쪽.

12) 王先謙 註, 《莊子集解》[諸子集成本]卷3, 上海書店, 1996, 11쪽.

송나라 사람이 ‘장모’라는 모자를 밀친 삼아 월나라로 장사를 갔지만 월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깎고 문신을 하고 있어서 그런 모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¹³⁾

송나라는 장자가 살던 전국시대에는 쇠퇴하였지만 춘추시대에는 문화가 번성했던 곳이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여전히 모자 등과 같은 예복이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월나라는 사정이 다르다. 월나라는 춘추시대 말에 이르러서야 중국 역사에 동참했던 신흥국가로 그 이전에는 거의 야만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월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추장시대의 야만적 풍습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월나라의 이런 사정을 모르고 송나라 상인은 모자를 팔려고 간 것이다. 이 상인은 송나라 사람의 또 다른 어리석은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¹⁴⁾ 그 어리석음이란 앞뒤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 융통성의 결핍에서 초래된 것이다.

융통성의 결핍을 이야기하자면 송나라 양공의 이야기만한 것도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十八史略》에 실린 것으로 이후 다수의 전적들 속에서 어짊에 대한 논의에 흔히 인용되기도 하는 유명한 실화이다.

후세 춘추시대에 이르러 양공자보(襄公茲父)라는 자가 있어 제후를 제패하고자 초(楚)나라와 싸웠다. 이때 공자(公子) 목이(木耳)가 적의 진세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공격할 것을 청하자 양공은 이렇게 말하였다.

“군자는 남이 곤약에 처했을 때 공격하는 법이 아니오.”

그리하여 초나라에 패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송양의 인(仁)이라 하여 비웃었다.¹⁵⁾

13) 宋人資章甫而適諸越，越人斷髮文身，無所用之。《莊子·逍遙遊》(같은 책, 4-5쪽.)

14) 강신주, 《장자읽기의 즐거움: 망각과 자유》, (생각의 나무, 2008), 102-107쪽 참조. 또한 저자는 송인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단지 편견일 뿐이며 장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타자성과 차이의 진리를 말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독자들의 어리석은 오류라고 주장하였다.

15) 後世至春秋，有襄公茲父者，欲敗諸侯，與楚戰。公子目夷，請及其未陳擊之。公曰：“君子不困人於阨。”遂爲楚所敗，世笑以爲宋襄之仁。曾先之篇，林東錫 譯註，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성어가 바로 ‘송양지인’이다. 동주시기 송나라는 초나라와 홍수(泓水)에서 전쟁을 치르게 된다. 송나라는 당시만 하더라도 황무지나 다름없던 초나라에 대해 문화적인 자부심이 대단했다. 송의 양공은 ‘인의(仁義)’라는 글자를 깃발에 크게 써서 내걸고 초군이 홍수를 건너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초나라 대군을 홍수에서 맞은 양공은 “강을 건너면서 대오가 흐트러진 적을 쳐야 이길 수 있다”는 재상 목이의 재촉에 “적이 곤란한 틈을 노려 공격하는 것은 군자가 취할 도리가 아니다”며 전쟁터에서 군자의 도리를 내세운다. 결국 양공은 강을 건넌 뒤 전열까지 정비한 적에게 참패했고, 결국 본인도 목숨을 잃었으며, 이 전쟁은 나라가 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양공을 어리석다고 비웃으며 그의 인정을 ‘송양지인’이라고 불렀다. 양공이 베푼 인(仁)은 오히려 치명인 화근이 된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수많은 원인이 있지만 송나라를 패망으로 이끈 양공의 어썩은 더할 나위 없이 무모해 보인다. 그러나 사마천은 조금 다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송양공이 홍수에서 비록 패하기는 했지만 어떤 군자는 대단히 칭찬할 만하다고 여겼다. 당시 중원지방의 국가들이 예의가 없는 것을 비탄하면서 그를 포상한 것은 송양공이 예의와 겸양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⁶⁾”라며 양공을 달리 보았던 것이다. 그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시비를 판단하기 힘들지만 어썩든 강한 문화적 자부심의 소치인 양공의 행위는 역사 속에서 회자될 만큼 융통성을 상실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상에서 송인들은 하나같이 어리석고, 단순하며, 무모하고, 간교하기까지 한 인물들로 묘사되어 있다. 그들의 모습은 은 왕조의 유민들이라는 타이틀까지 더해진 채로 몇 천 년을 독자들의 뇌리 속에서 되도록 본받지 말아야 할 상징적 캐릭터로 고정되어 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형상이 보

《十八史略》 1卷, 동서문화사, 2009, 253쪽.

16) 사마천, 정범진 외 옮김, 《사기세가》, 까치, 2002, 166쪽.

여주는 상징성들이 과연 그 민족이 지니는 본질적인 동일성으로 규정될 수 있는지 검증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Ⅲ.殷 왕조의 문화적 역량

은 왕조는 그들을 정복했던 주 왕조와 여러 방면으로 비교되어 왔다. 또한 역사진화론적 관점에서 주나라의 문화가 은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관념이 통설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인식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은나라의 문화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찬란한 주나라의 문화를 따르겠다¹⁷⁾고 한 공자의 유학이 중국의 역사 위에 군림해온 것이 더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럼 은나라에서 주나라로의 이행이 문화적으로 “비약”이라고 할 만큼 그 격차가 큰 것인가? 거기에는 주나라의 문화를 계승한 유교의 영향으로 은나라의 문화가 폄하된 측면은 없는가? 이제 은나라 문화의 실상을 예(禮)와 군사력, 문자 등을 통해 규명해보고자 한다.

공자가 주나라를 숭앙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도 예에 있었을 것이다.¹⁸⁾ 그렇다면 은 왕조의 예에 대한 관념은 어떠했을까?

은 왕조는 신이 예보다 중시되었던¹⁹⁾ 왕조이며, 신을 섬기는 제사에 수백 명 심지어는 수천 여 명의 인간을 제물로 쓰기도 하였다.²⁰⁾ 이것은 은

17) 郁郁乎文哉! 吾從周. 《論語·八佾》(劉寶南 著, 《論語正義》[諸子集成本] 卷1, 上海書店, 1996, 56쪽.)

18) 이에 대해 김용옥 선생은 공자에 있어서 學의 대상이 禮였음을 언급하였다. 즉 공자에게서 정치는 곧 삶의 예의 정치이고, 교육이란 곧 삶의 예를 제자들의 삶에 구현시키는 것이었다는 것이다.(김용옥, 같은 책, 92쪽.)

19) 殷人尊神, 率民以事神, 先鬼而後禮. 《禮記·表記》(王文錦 譯解, 《禮記譯解》, 中華書局, 2001, 812쪽.)

20) 머리를 伐이라는 제사로서 1회의 제사에 5명부터 100명에 이르는 사람을 희생물로 사용한 것은 흔히 보이고 가장 많은 것은 2천 5백 5십6명이나 된다. (胡厚宣, <中國奴隸社會的人殉和人祭>, 下篇, 《文物》, 1974. 8기, 56쪽.) 윤

왕조가 인간보다는 신을 숭상하는 종교적인 왕조였음을 방증해준다. 그야말로 인간의 삶이 아닌 신의 영역에 대한 예만을 중시했던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의 언급들은 반드시 그렇게 단정 지을 수만은 없음을 시사해준다.

은대 湯王은 이웃 갈(葛)의 정벌을 시작으로 하여 잇따른 정복 후에 최고의 정치권력자에 올랐다.²¹⁾ 그러나 탕이 천하에 군림하게 된 것은 단순히 무력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은본기》나 《맹자》는 탕의 성공을 무엇보다도 도덕성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그는 갈의 군주가 자신의 조상에 대한 숭배를 거부한 것, 무고한 아이를 죽인 것, 하대 마지막 걸왕(桀王)의 폭정 등 그들의 부정(不正)함에 분노하여 정벌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또한 탕은 제사에 바치는 짐승조차 사냥 그물의 한 면을 띄워놓고 도망가지 않고 희생을 원하는 짐승만을 잡게 했으며, 오랜 가뭄에는 뽕나무 숲에서의 기우제에 자신을 희생으로 삼기도 했다. 이러한 예들은 탕의 도덕적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대 후기에 지배적이었던 사상인 “어진 정치(仁政)”라는 원리가 반영된 것이지만 아마도 이는 고대 세계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리로써 작용했을 가능성 또한 크다.²²⁾

역사적인 기록이 충분하지 못한 까닭에 지금까지도 정설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학설은 없지만, 은대 문화에 대해 상세한 연구를 진행했던 장

내현, 《商周史》(민음사, 1984), 66쪽에서 재인용. 또한 은 왕조의 인간희생 제의에 대해서 김선자는 은 민족이 인간을 희생으로 바쳐가면서까지 섬겼던 신은 바로 그들의 조상신이었다고 하였다. 조상신을 잘 받들어야 현실적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러한 개념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지속되는 뿌리 깊은 관념이며, 선왕 즉 조상신들을 왕의 권력과 연관지어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중국에는 커다란 재앙을 입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당시의 인간희생제의가 왕의 권력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을 것임을 확신하게 해준다고 보았다.(김선자, <중국인간희생신화전설 연구-폭력과 권력, 그리고 효>, 《중국어문학논총》, 제24호, 2005, 491-498쪽 참조)

21) 《孟子·梁惠王章句·下》, 같은 책, 158-159쪽 참조.

22) 張光直 지음, 윤내현 옮김, 《商文明》, 민음사, 1989, 39-40쪽 참조.

광직은 하·은·주 삼대의 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즉, 하·은·주는 공동의 문화를 가졌으며 그 문화의 세부적인 내용에서 각각 달랐을 뿐이라는 것이다.²³⁾ 이러한 주장은 이전과 근래의 문헌의 자료를 볼 때 학자들 사이에서 통설로 되어있다. 왜냐하면 《禮記·禮器》에서는 “삼대의 예는 한 가지였는데 모든 민이 그 예에 따랐다”²⁴⁾라고 하며, 《論語·爲政》편에는 “은은 하의 예법을 따랐는데 그것에다 빼거나 더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주는 은의 예법을 따랐는데 그것에다 빼거나 더한 것을 알 수 있다”²⁵⁾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은나라의 문화적 역량을 짐작케 하는 것으로 현인들을 들 수 있다. 공자는 “미자(微子)는 은나라의 주왕을 떠났고, 기자(箕子)는 노예가 되었으며, 비간(比干)은 간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은 왕조에는 이와 같은 세 사람의 어진 자가 있었다”라고 하였다.²⁶⁾ 그 세 명의 현인 가운데 미자는 송에 봉해져 은의 종사를 잇게 되었다. 송은 미자에 의해 계승된 은의 문화 전통으로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질서를 유지한 나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은나라에는 이들 세 명의 현인들 말고도 사마천이 열전 제일 첫 머리에 두었던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는 치르지 않고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효(孝)가 아니며, 신하된 자로써 군주를 시해하려는 것은 인(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왕의 정벌을 반대했다. 그러나 무왕이 정벌을 감행하자 수양산에 들어가 굶어 죽었다. 사마천이 어느 누구보다도 백이와 숙제를 우선으로 친 것은 실제적인 덕행을 지녔으면서도 후세에 전해지지 못한 사실에 안타까워하여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 두 형제가 인덕을

23) 張光直, 같은 책, 443-447쪽 참조.

24) 三代之禮, 民共由之. 《禮記·禮器》, 같은 책, 322쪽.

25) 殷因於夏禮, 所損益, 可知也. 周因於殷禮, 所損益可知也. 《論語·爲政》, 같은 책, 39쪽.

26) 사마천, 정범진 외 옮김, 《사기세가》, 까치, 2002, 165쪽.

쌓고 깨끗한 행실을 지녔음을 마땅히 칭양되어야하며, 그토록 의로운 사람이 불행히 죽은 것을 보면 천도가 공평무사하지 않다고 역설하였다. 이처럼 백이와 숙제의 행실은 공자를 비롯한 여러 영향력 있는 사상가들에 의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군자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의리와 충절의 상징으로 지속되어 왔다.

중국 역사상 한 왕조에서 동시에 거론될 수 있는 현인이 이처럼 여럿인 경우도 드물다. 이는 그만큼 은나라의 문화적 역량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자가 “날씨가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전나무가 더디 시든다는 것을 안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也)”²⁷⁾고 한 것처럼 은 왕조 마지막 왕의 폭정이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인들이 있었다는 것은 은나라가 물질 문명 뿐만 아니라 정신문명에 있어서도 결코 뒤지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처럼 은 왕조도 주 왕조 못지않게 예악을 중시하였고 그것에 충실한 현인이 존재하였으며, 문자 문명을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몰락 이후 도읍의 파괴로 인해 남아있었던 왕조의 문서마저도 점차 산실되었다. 그 때문에 은 나라의 멸망 후 거의 600년이 지난 공자 시대에 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슬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⁸⁾

나는 은 왕조의 예에 대해 더 능히 말할 수 있지만 宋에는 나의 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거기에 관한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들이 충분하다면 나는 그것을 근거로 제시하여 나의 말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²⁹⁾

고대 중국에서 문화의 유무와 그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인 예가 은나라에도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자의 이 말이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은나라는

27) 《論語·子罕》, 같은 책, 193쪽.

28) 장광직, 같은 책, 30쪽.

29) 殷禮, 吾能言之. 宋不足徵也. 文獻不足故也. 足, 吾能徵之矣. 《論語·八佾》, 같은 책, 49쪽.

예라는 정신문명만이 아닌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물질문명 또한 발달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은의 통치자들은 그들의 휘하에 방대한 군사력을 소유했다. 점복의 기록에는 3천명, 5천명 혹은 1만3천명을 거느리고 출전하거나 한꺼번에 3만 명을 포로로 획득한 군사 활동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다.³⁰⁾

은나라가 가진 군사력의 정도를 확실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주나라와의 마지막 전쟁이다. 당시 주 무왕이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 극악무도한 은나라 수도로 진격하는데 800명의 제후가 동참했다. 그리고 무왕과 그 제후들이 동원한 군사의 수가 모두 5만이었다. 그런데 은 주왕의 군사는 70만 대군이었다. 70만의 대군으로 5만의 군사를 이기지 못하고 패망한 것은 무엇보다 은나라의 잔인성에 학을 떼는 군사들의 이반의 조짐으로 인한 사기의 저하라고 볼 수 있다.³¹⁾

그러나 주나라와 상대적으로 은나라가 군사를 동원할 수 있었던 능력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한 나라의 강력한 왕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군사, 제도, 경제, 통치지역 등 많은 부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출전에 동원된 군사나 획득한 포로들의 수는 그것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그 만큼의 힘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왕권의 강력한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그 외에도 갑골문의 사용 역시 은 왕조의 문화적 토대를 설명해 주는 좋은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역사는 은대의 갑골문의 기록을 시점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자의 발명은 문명 발상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문자를 통해 역사의 기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추상적 사유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은대 갑골문의 숫자는 6,001개이다. 동양문화의

30) 陳夢家, 《殷墟卜辭綜述》, 中華書局, 1992, 276-277쪽, 참조.

31) 수잔 와이즈 바우어 지음, 이광일 옮김, 《세상의 모든 역사》[고대편1], 이론과 실천, 2007, 406쪽.

전반적인 가치체계를 표현하는데 사용된 글자가 불과 6,500여 자에 불과한 것을 고려한다면 갑골문이 비록 그림문자이기는 해도 이미 동양문화의 밑그림이 이 문자들에 충분히 그려져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은나라를 정복한 주나라는 여러 종족 모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의사소통의 도구인 갑골문을 공식문자로 사용했다. 은나라 갑골문의 글자 수가 6,000 여 자를 넘고 있는데 반해 주족이 사용한 갑골문의 글자 수는 2005년 현재 파악된 것까지 1,350 여 자에 불과하다. 이것을 보면 주나라가 은나라의 갑골문을 차용해서 쓰기는 했으나 글자의 수, 쓰기의 세련도, 어휘 수와 문장 구성 등에서 갑골문과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크게 뒤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²⁾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은나라가 오랜 세월 숙성시켜 온 역사적 경험은 후대 주나라의 발전을 돕는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주나라의 문화는 모두 잘 알다시피 동양문화에서 주류의 위치를 점하게 된다. 때문에 동양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은 주나라의 문화 속에서 찾게 되지만, 주나라 문화의 시원은 은나라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IV. 諸子書を 대하는 하나의 독법: 상상적 디아스포라

중국의 고대 역사는 주나라가 은나라를 대신해 천명을 받들고 가장 인문적인 왕조를 세운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서경》의 기록은 당시 주의 지식인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역사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주나라가 은나라를 정벌한 것은 정의로우며, 또 고상한 주나라의 전사들이 방탕하고 포악한 왕이 이끄는 부패한 조신들을 상대로 한 전투에서의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주는 은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인식하고 은이 맡았던 역할을 계승하기를 원했다.³³⁾ 그래서 호전적이었던 무왕

32) 김경일, 《한자의 역사를 따라 걷다》, 바다출판사, 2005, 56-77쪽 참조.

도 은나라가 예전에 갖고 있던 신성한 권위를 최대한 존중했다.³⁴⁾

하나의 예로 《書經·泰誓》에 기록된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치기 전에 맹나루(孟津)를 건넌 후 황하의 물가에서 그를 따르는 여러 제후 이하 전 장병들에게 한 훈시를 들 수 있다. 무왕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격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나의 무위를 드날리고 그의 땅으로 쳐들어가 그 흉악한 해독을 끼치는 자를 잡겠소. 나의 정벌이 행하여진다면 탕 임금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오.³⁵⁾

은나라를 치러 가면서 전승의 영광을 은의 시조인 탕왕에게 돌리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신의 정벌이 그만큼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후와 병사들에게 있어서 은 왕조의 정통성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또한 무왕이 강물을 한번 건너는 사이에 세 번이나 거듭 주왕의 죄를 들어 부하들의 단결을 호소하는 것을 보면, 무왕이 비록 천명을 받들어 정벌한다고는 하지만 그로서도 은의 존재를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역사가들은 주나라의 봉기를 정당화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왜냐하면 역사는 승자를 위한 기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나라의 첫 임금은 무도한 신하가 아니라 펼쳐 일어나 사악함을 물리치고 새로운 순환을 시작하는 미덕을 갖춘 인물이어야 했다. 주나라 통치의 시작을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무왕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문

33) 페트리샤 버클리 에브리 지음, 이동진·윤미경 옮김,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캠브리지 중국사》, 시공사, 2007. 33-34쪽 참조.

34) 수잔 와이즈 바우어 지음, 이광일 옮김, 《세상의 모든 역사》[고대편2], 이론과 실천, 2007. 17쪽.

35) 我武惟揚, 侵于之疆, 取彼凶殘. 我伐用張, 于湯有光. 김학주 역저, 《書經·泰誓·中》 명문당, 2002, 263-264쪽.

왕으로부터 잡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³⁶⁾

은나라를 복원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무왕의 새 왕조는 왕조의 정당성을 세심하게 입증해야만 할 처지였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의 권위는 지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주나라 동쪽 변방에는 은나라 유민이 정착해 있었고, 그들은 끊임없는 감시가 필요한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들은 비록 과거의 것이기는 하지만 가장 발달한 문화를 소유하고 경험했던 자들로서 외면과는 달리 내면으로는 정복자에 대한 우월감과 함께 반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는 방법은 과거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정복당한 민족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왜곡을 통해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제자서 속에 나타난 송인들의 형상이 바로 주나라 문화권에 의해 희화화된 인물들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나라는 자신들이 멸망시킨 왕조의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한편 정복에 대한 자신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고히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송나라는 은나라 유민들의 디아스포라이다.

디아스포라 주체들은 탈중심화 된, 불안정한, 주변화 된 관점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고, 그들은 자신들이 떠난 “거기”에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소속되어 있으며, 동시에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 존재하면서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이중의식을 가진다.³⁷⁾ 은나라의 유민인 송나라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이중적인 의식 속에서 불안정한 삶을 영위했을 것이다.

적어도 은주 교체시기엔 주 민족이 은의 신성한 권위를 존중했다 할지라도 주나라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하나의 안정된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부터 은의 권위나 문화를 무작정 존중하거나 긍정해 서는 안되게 되었다. 그들은 점차 그 의도를 교묘히 가린 채 서서히 송인

36) 수잔 와이즈 바우어, 같은 책, [고대편1], 403-407쪽 참조.

37) 박경환, <디아스포라 주체의 비판적 위치성과 민족 서사의 해체>, 《문화역사지리》 제19권, 제3호, 2007, 9쪽 참조.

들을 폄하하는 다양한 문화적 서사들을 등장시켰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나라의 지식인들의 손을 거쳐 나온 제자서 속 송인의 형상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윤색되었을 것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우리는 제자서 속에서 송인과 관련된 몇 가지 우언 및 역사적 서사를 통해 은 왕조의 디아스포라라는 공간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서사물들을 읽어내는 우리의 시각이다. 읽는다는 것은 ‘역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며, 역사가의 기록과 편집 뒤에, 그리고 역사 서사물에서의 상징, 기호, 표시, 구성 밑에 깔려 있는 도덕적,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심층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³⁸⁾ 루샤오핑은 서사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많은 예들이 중국에서는 “역사물”, 또는 다양한 “철학적 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허구에 대한 독립적인 이론은 중국 왕조 말기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³⁹⁾

그의 지적을 감안한다면 중국 고대의 많은 독자들은 선진 제사서에서 윤색된 송인의 모습, 즉 실제 사실인 송양공의 무모한 인정은 물론이고, 벼를 자라게 하려고 싹을 뽑은 농부, 무작정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가 달려들어 죽길 바라는 농부, 융통성 없는 모자장사, 간교한 저공 등의 여러 우언 속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 송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공통적인 동일성을 실재화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한 동일성은 독자들의 뇌리 속에서 하나의 민족성으로 인식되고 고정된 채 그들의 선조인 은나라에 대한 민족적 편견에도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은나라와 주나라가 상대기간에 걸쳐 공존했었으며 두 왕조의 상대적인 정치권력이 바뀌기는 하였지만 은에 대한 주의 종속적인 지위는 쉽게 가정할 수 있고 또한 거의 확실한 사실이다.⁴⁰⁾ 그러나 문서 자료의 산실을

38) 루샤오핑 지음, 조미원·박계화·손수영 옮김, 《역사에서 허구로: 중국의 서사학》, 길, 2001, 101쪽.

39) 루샤오핑, 같은 책, 25쪽.

비롯해 그 후 중국역사상 최장기간을 존속할 수 있었던 주왕조의 역사와 권력, 그리고 잘 정비된 문화의 그늘에 묻혀 은의 문화는 본래의 면모를 드러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그늘에 묻힌 은의 본래의 모습을 왜곡된 송인의 형상 속에서 찾아야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역사와 서사물 속에서 왜곡과 조롱으로 얼룩진 약자인 피정복민의 원형을 회복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V. 나오는 말

지혜와 철학적 가치가 풍부한 제자백가의 사상을 현대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금과 닮아 있는 과거를 재조명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자서에 대한 읽기와 해석은 여전히 유용하다.

제자서에는 춘추전국시기를 살았던 많은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다. 독자들은 그들의 형상을 통해 지혜와 철학적 가치는 물론이고 중국의 역사나 문화, 그리고 인성 등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도 송나라 사람들은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우둔하거나, 혹은 융통성이 없거나, 간교한 인물로 묘사되었던 경향이 있다. 예컨대 알묘조장이나 수주대토, 조삼모사와 같은 우언고사를 비롯해 송양지인 등의 역사고사를 통해 송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송인들의 선조가 은 민족이었으며, 은 민족이 하나의 문명을 이루었을 만큼 우수한 민족임을 상기할 때, 제자서 속의 송인들의 모습은 다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 본고에서는 은 왕조의 문화적 역량, 예컨대, 예의 실현, 무력적인 강성함, 갑골문의 글자 수 등을 들어 은 문화가 결코 주 문화에 뒤지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40) 장광직, 같은 책, 447쪽 참조.

은주 두 나라의 정치권력이 뒤바뀌긴 했어도 은에 대해서 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종속적인 지위였고, 따라서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을 보장하기 위해 견제해야 할 세력인 은의 유민, 즉 송인들에 대한 폄하와 왜곡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선진 제자서 속의 송인들은 어쩌면 역사의 희생물 인지도 모른다. 문학 텍스트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역사적, 제도적 기원 안에서 배태되기⁴¹⁾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뿐만 아니라 서사 또한 승자에 의한, 그리고 승자를 위한 기록일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송인들의 모습을 그들 민족의 태생적, 본질적 동일성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역사와의 관련 속에서 그들을 그렇게 묘사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 민족이 송대 유민들에게 가했던 왜곡과 오해가 오래되면 사실과의 간극도 그만큼 깊어지며, 그것은 점차 고정화된 역사가 될 것이다. 서사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각 서사의 부분적인 진실과 그 고유한 의의, 가치를 깨달아야 하는 것⁴²⁾이다. 그것이야말로 고전을 대하는 하나의 공정한 독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우재호 옮김, 《孟子》, 을유문화사, 2007.
 남만성 역주, 《韓非子》, 현암사, 1993.
 王先慎 集解, 《韓非子集解》, [諸子集成本]卷5, 上海書店, 1996.
 王先謙 註, 《莊子集解》[諸子集成本]卷3, 上海書店, 1996.
 劉寶南 著, 《論語正義》[諸子集成本]卷1, 上海書店, 1996.
 王文錦 譯解, 《禮記譯解》, 中華書局, 2001.
 曾先之篇, 林東錫 譯註, 《十八史略》1卷, 동서문화사, 2009.

41) 루샤오핑, 같은 책, 252쪽.

42) 루샤오핑, 같은 책, 263쪽.

- 김학주 역저, 《書經》, 명문당, 2002.
- 사마천, 정범진 외 옮김, 《사기세가》, 까치, 2002.
- 김용옥, 《도올논어》[1]권, 통나무, 2000.
- 강효백, 《중국인의 상술》, 한길사, 2002.
- 강신주, 《장자읽기의 즐거움: 망각과 자유》, 생각의 나무, 2008.
- 張光直 지음, 윤내현 옮김, 《商文明》, 민음사, 1989.
- 윤내현, 《商周史》, 민음사, 1984.
- 陳夢家, 《殷墟卜辭綜述》, 中華書局, 1992.
- 수잔 와이즈 바우어 지음, 이광일 옮김, 《세상의 모든 역사》[고대편1,2], 이론과 실천, 2007.
- 김경일, 《한자의 역사를 따라 걷다》, 바다출판사, 2005.
- 페트리샤 버클리 에브리 지음, 이동진·윤미경 옮김,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캠브리지 중국사》, 시공사, 2007.
- 루샤오핑 지음, 조미원·박계화·손수영 옮김, 《역사에서 허구로: 중국의 서사학》, 길, 2001.
- 김영, <한문고전의 현대적 이해>, 《시학과 언어학회》, 2002.
- 유강하, <‘고전’수업을 위한 제언-인문학적 삶의 실천을 위한 수업모델 제안>, 《중국어문학논집》, 2007.
- 김선자, <중국인간희생신화전설 연구-폭력과 권력, 그리고 효>, 《중국어문학논총》, 제24호, 2005.
- 박경환, <디아스포라 주체의 비판적 위치성과 민족 서사의 해체>, 《문화역사지리》 제19권, 제3호, 2007.

<中文提要>

諸子書中, 有着把宋人們描寫爲過于單純, 或是愚鈍, 或是沒有靈活性, 亦或是狡詐的人物的傾向. 例如掘苗助長, 守株待兔, 朝三暮四等, 通過宋襄

之仁等歷史故事，形成了對宋人的反面認識。

但宋人的祖先是殷民族，想起殷民族是一个形成了一种文明的优秀民族時，就會懷疑諸子書中的宋人形象是否多多少少受着不合理的待遇。因為殷文化的力量超越了周文化。

爲了保障新王朝的正統性，必須牽制住殷遺民的勢力，即對於宋人的貶低和歪曲是极其理所当然的。但我們要在与有關沒有把宋人的形象看作爲他們民族天生的、本質上的同一性的歷史中，努力理解不得不那樣描寫他們的原因。如果周民族加于宋遺民的歪曲与誤解長久的話，与事實的間隙也隨之變深，那將會漸漸成爲固定化的歷史。

對敘事的真正理解必須領會各敘事部分的真實和他固有的意義及价值。也就是可以說是對古典的一种公正的解讀。

주제어 : 殷周交替, 遺民, 宋人, 諸子書, 虛構, 歷史敘事, 文學敘事